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12.(일) 16:00  
(지 면) 2026. 7. 13.(월) 조간

## 전국적 폭염 위험 확산에 따른 관계부처 대응상황 긴급 점검

- 중앙부처 및 16개 시·도, 주요 폭염 조치사항 공유·점검
-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총력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석하는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별 대응 추진상황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군 집중 안전관리, 옥외·고온실내 작업 중지, 무더위쉼터 운영 철저 등의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쪽방 주민, 홀로 사는 어르신,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예찰활동 주기를 단축하고, 건강 상태 확인 및 냉방물품 지원 등 보호조치도 빈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공사장과 논·밭 등에서 일하는 야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폭염 집중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기로 하였다.

무더위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안개형 냉각기(쿨링포그), 열식힘도로 등 폭염 저감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며, 특보 발효 지역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연장·추가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난문자와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국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권고하였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냉방시설 운영과 긴급 급수 등을 통해 가축 폐사를 예방하고, 양식어류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올해 최초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며 폭염 위험이 한층 높아진 만큼, 행정안전부는 회의에 앞서 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북 경산시에 자연재난실장 및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여 현장 대응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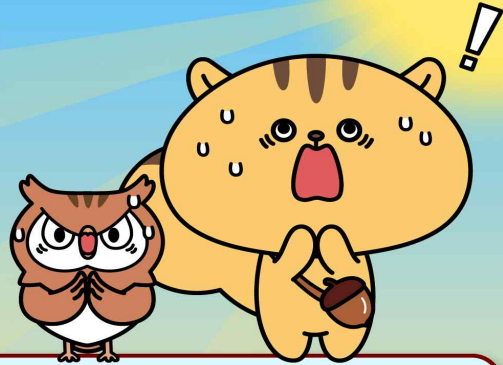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경보와 중대경보 지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근로자 안전관리 등 현장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                  |     |     |                    |
|-------|------------------|-----|-----|--------------------|
| 담당 부서 | 자연재난실<br>기후재난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진희 (044-205-6360) |
|       |                  | 담당자 | 사무관 | 장현준 (044-205-6366) |



#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